



개살구나무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장미과
- ▶ 학명 : *Prunus mandshurica* var. *glabra*
- ▶ 영명 : Apricot
- ▶ 한명 :杏, 杏樹
- ▶ 일명 : 만시로우안즈

3년전 7월초경 직장에서 민원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중앙부처 고위직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다른 할일이 없어 취미 겸 직업으로 산을 오르는데 강원도 화천 근교의 산을 오르다가 아주 특별한 나무를 발견하였고 합니다. 이름이 알고 싶다는 전화였지요. “그러면 사진을 찍었습니까?” 했더니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못 찍었고, “그러면 잎이나 가지라도 채취했습니까?” 라고 여쭙었더니 나무가 높아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 생김새라도 말씀하시지요.” 했더니 나무줄기는 틀림없는 굴참나무인데 열매는 살구 같은 열매가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나무 이름은 개살구나무입니다 라고 했더니 매우 실망스런 투로 고맙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무를 발견하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 줄기에 코르크를 형성하는 나무로는 굴참나무, 황벽나무, 개살구나무 3종입니다.

1. 생태적 특성

중부 이북의 산에서 자라는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는 큰키나무로 높이



▲ 개살구나무



▲ 개살구나무

5~10m까지 자라나 다른 큰키나무와 경쟁하는 곳에서는 더 큰 키나무로 자라기도 한다. 나무줄기 겉껍질에 코르크가 발달하여 간혹 굴참나무와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

도 간혹 있다. 추위에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가능하고 그늘이나 건조한 곳에서는 약하나 해풍이나 대기오염에는 강하다. 양지바르고 토심이 깊은 사질양토로서 비옥하고 적당한 수분이 있으며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수 있다.

2. 형태적 특성

어린가지는 갈색이고 털이 없다. 잎은 어긋나며 넓은 계란형 또는 넓은 타원형이고 긴 점첨두이며 넓은 예저 또는 원저이고 5~12cm로서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복거치가 있으며 끝이 둔두 또는 예두이고



▲ 개살구나무



▲ 개살구나무

양면에 털이 없으며 뒷면은 녹색이고 맥이 만나는 부분에 잔털이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2~3cm로서 털이 없다. 꽃은 4~5월에 잎보다 먼저 1개씩 피고 지름 2.5~3.0cm로서 연한 홍색 또는 거의 백색이며 소화경은 길이 8mm이다. 열매는 둥근 계란형이고 지름 2.0~2.5cm로서 7~8월에 황색으로 익는다.

유사종으로 엽맥에 털이 있는 것을 털개살구 (var. baebinervis) 라고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얼음이 녹으면서 우리나라 농촌에 봄을 부르는 영춘화(迎春花)처럼 봄을 반겨주는 아름다운 개살구나무 꽃은 동요에서처럼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와 함께 고향을 대변하는 관상수요 유실수이다. 개량 살구나무 보다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식재 할 수 있는 장소는 더욱 넓어질 수 있다.

4. 번식법

번식은 7월경 종자를 채취하여 보호저장한 후 12월에 노천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5. 그 밖의 용도

개살구의 열매에는 각종 비타민이 들어 있어 생식으로 가능하며 술을 담가서 먹을 수도 있다.

개량 살구의 접목용 대목으로도 가능하다. 